

## 호텔 통째로 빌린 이유



▲ 난민들과 함께 한 야쿠프 골라타(왼쪽 끝)와 아내 고사아 골라타(오른쪽 끝). 사진=dailymail.co.uk

영국에 거주하는 폴란드 출신 부부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구하기 위해 호텔 전체를 빌려 화제다.

2004년 영국으로 이민한 폴란드인 야쿠프 골라타(42)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국으로 향했다. 마침 아내도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휴직계를 내고 폴란드로 간 터였다. 폴란드 국경으로 향한 골라타는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목격하곤 그 길로 난민 구조에 뛰어 들었다.

골라타는 작은 버스 한 대를 빌려 우크라이나 난민을 폴란드로 실어 날랐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골라타는 "난민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싶었다. 호텔 하나만 빌리면 난민을 좀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고 말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다. 회사를 오래 쉴 수 없는 것도 문제였다. 그때 영국에 있는 그의 상사가 마음 놓고 난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장기 휴가를 허락하고, 호텔 임대료도 지원해줬다. 폴란드에 지부를 둔 영국 자선단체를 수소문해 추가

자금 조달까지 도왔다. 그 덕에 골라타는 침대 180개가 있는 폴란드 비드고슈치 근처에 있는 작은 호텔을 임대할 수 있었다.

이후 골라타는 버스를 몰고 국경으로 가 난민을 실고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왕복 1,200km 여정을 하루 16시간씩 반복하며 149명을 실어 날랐다.

골라타는 "위기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론 부족하다.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 뇌물의 힘 ... 교도관 옷 입고 탈옥

마약조직 부목이 교도관 옷 입고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라피코타 교도소에서 지난 18일 수감자 한 명이 탈옥한 뒤 내부 조력자로 추정되는 교도관이 체포됐다.



▲ 교도관 옷 입고 탈옥한 콜롬비아 마약왕. 사진=esmania.com

탈옥한 수감자는 콜롬비아 최대 마약조직 '엘란 델골포' (엘프 클렌)의 한 분파를 이끄는 후안 라린손 카스트로 에스투피난이다. 미국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던 마탐바는 지난해 5월 마약 밀매와 돈세탁,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돼 최고 경비 교도소인 라피코타에 수감돼 왔다.

탈옥 사실이 알려진 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그가 교도관 옷을 입고 7개의 열린 문을 유유히

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카메라 위치를 아는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검찰은 탈옥 1시간가량 전에 출입문을 열어준 교도관 한 명을 뇌물 수수 및 탈출 조력 혐의로 체포하고, 교도소장과 부소장, 교도관 55명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잠정 수사 결과에 따르면, 마탐바는 조력자와 함께 있어 5개의 감시 지점을 통과하면서도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또 외부로 나가는 일부 CCTV는 작동 중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마탐바가 비행기를 타고 이미 보고타는 물론 콜롬비아 안에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마탐바는 이전에도 두 차례나 탈옥했다 잡힌 경험도 있다.

## 30세에 할머니 된 여성



▲ 딸 스카이 솔터(그의 아들 베일리)와 딸의 할머니(왼쪽부터). 사진=theun.co.uk

영국에서 만 30살에 할머니가 된 젊은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그는 16살이 되던 해에 딸을 낳았는데 딸은 엄마보다 2년 더 빠른 14살 때 아들을 출산했다. 덕분에 젊은 엄마는 영국에서 가장 '어린 할머니' 로 기록됐다.

런던 서부지역에 사는 켈리 힐리(33)는 3살 난 외손자가 있다. 딸 스카이 솔터(17)가 2018년 8월, 14살이던 나이에 손자 베일리를 낳았기 때문이다. 당시 켈리의 나이는 겨우 30세였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최연소 할머니 기록은 33세에 손주를 얻은 제마 스키너였다.

현재 다섯 아이의 어머니인 켈리는 "딸의 임신 소식을 듣고 너무 황당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며 "밖에 나가면 다들 손자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아들이 아니고 손자라고 하면 다들 까무러치게 웃는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난 아직도 철부지 없는 20대 초반이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며 웃었다.

딸은 "의사로부터 임신한 지 너무 오래돼 낙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사실 낙태할 생각도 없었다. 초음파 화면에서 아이의 심장이 마구 뛰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 이라고 회상했다.

또 "아이 아버지는 내 포레의 동네 청년" 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은 늦은 결혼과 출산 때문에 고령인 나라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평균 결혼연령은 2017년 기준 여성은 35.7세, 남성은 38세다.



# Thank You Dental!

Implant Orthodontic General Dentistry



Special 1

**Free Consultation**

Digital panoramic X-ray

Special 2

**Implant \$2,000 \$1,200**

환자 맞춤 이식 및 관리  
뼈이식시 자가혈 치료 무료  
(Reg. \$500)

**뼈가 부족하거나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Thank You Dental에서는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CBCT 구비, 자가혈 CGF 치료, 최상의 장비 구비 및 철저한 소독**

풍부한 임상 경력, 임플란트 전문, 일반치과, 교정치과, 전문 치위생사와 함께 일하는 원스탑 종합 치과

**OC (714) 772-5656**

1721 W. Katella Ave #A, Anaheim, CA 92804

한인 담당 매니저 Annie

임플란트, 구강외과  
교정 전문의  
일반 치과  
치위생사

Dr. Michael Ahn  
Dr. Dan Nguyen  
Dr. Young Kim, Dr. Hoang Viet  
Kelly Nguyen, Mindy Pham

각종 보험 (PPO)  
메디칼 환영